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 1946년 10월 26일 창간 | i-honam.com | 제 3117호 | (음력 2월 20일) 2021년 4월 1일 목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섬진흥원은 목포에' 전남도·도의회 유치 총력전

김영록 전남지사 도민 동행 릴레이
전남도의회 목포 유치 지지 성명서
내일부터 현지…10일 후보지 발표

오는 8월 설립 예정인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를 위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3월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를 시작으로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를 희망하는 전남도민 동행 릴레이가 지난 3월 26일부터 시작됐다.

릴레이에는 전남의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반월박지도, 연홍도, 가우도, 낭도 등 섬 주민들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을 위한 기관으로 오는 8월 설립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05년부터 섬이 미래의 중요한 자원임에 주목하고 '섬가꾸기팀'을 조직해 섬에 관련된 생태, 역사, 문화 자원들을 조사해 왔다.

이후 섬가꾸기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5년부터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8년에는 전국 최초로 '섬발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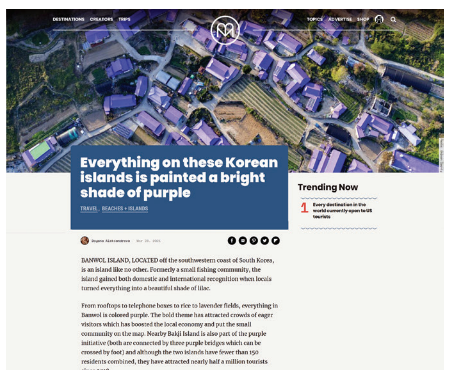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해 정부 조사팀이 4월2일부터 현지 실사를 하며 4월10일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광한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0만 도민이 한 뜻으로 염원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동행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다"며 "전남은 오래전부터 섬 정책의 선구적 역할을 해 온 만큼 한국섬진흥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한국섬진흥원 목포시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경선 전남도 운영위원장은 "목포는 우리나라 섬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 인적, 물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섬진흥원 설립의 최적지다"며 "목포시가 준비하는 세계 섬엑스포 등 각종 사업과 섬진흥원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신안의 퍼플섬 소개 '마타도어네트워크'. (사진=신안군 제공)

'몽환적인 채색의 섬' 신안 퍼플섬, 美여행사이트 소개

마타도어네트워크, SNS 팔로워 180만명

신안군의 퍼플섬이 페이스북 팔로워만 180여 만명에 달하는 미국 여행사이트에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군은 미국의 주요 여행안내 사이트 '마타도어네트워크(Matador network)'가 퍼플섬(반월도·박지도)을 '밝은 보랏빛으로 모든 것이 칠해진 한국의 섬'이라고 소개했다. '마타도어네트워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발행되고 있으며, 주요 독자층은 20대와 30대다.

특히 페이스북 180여 만명, 인스타그램 30여 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SNS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3월26일자로 발행된 관련 기사는 신안의 퍼플섬을 "몽환적인 채색의 섬"이라며 "대한민국 방문시 여행으로 여행하기 좋은 새로운 여행지"라고 소개했다.

'마타도어네트워크'는 컬러사진과 함께 6.2㎞에 이르는 보랏빛길, 퍼플교, 라벤더 정원, 반월도 조형물 등 퍼플섬 곳곳을 양면에 걸쳐 안내했다.

신안의 퍼플섬은 앞서 미국(CNN), 영국(로이터통신), 독일, 호주 등 20여 개국 매체를 비롯해 영미권 여행 웹사이트에서 소개할 정도로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유명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보랏빛이라는 색채로 이야기하는 최초의 섬이자 유일한 섬인 반월도와 박지도를 더욱 특색 있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퍼플섬에 대한 관광정보는 반월박지도 홈페이지(http://반월박지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광주 도심 3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 1.5ha 추가 조성

상록수목 등 3만여그루 추가 식재

광주시는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속 미세먼지를 차단·흡수할 수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추가 조성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숲 조성지는 남구 효천1지구 완충녹지, 광산구 진곡, 평동산단 주변 녹지 등 3곳에 면적은 1.5ha로, 올해 6월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계약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올해 4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사계절 미세먼지 차단 기능과 함께 경관도 고려해 소나무, 가시나무, 아왜나무 등 상록수목과 이팝나무,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등 잎이 커 미세먼지를 차단·흡수 효과가 높은 낙엽수목 등 3만 여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신재욱 시 공원녹지과장은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되면 미세먼지의 주거지역 유입 차단과 함께 도심에 깨끗한 공기 공급은 물론 열섬현상 완화와 미기후 조절 기능, 소음 감소 등 각종 환경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해 폐기물처리장 주변, 생활권내 도로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비엔날레 '조개껍데기 오토바이 헬멧'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 주제의 13회 광주비엔날레가 3월 31일 막을 올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에모 데 메데이로스 작가의 '조개껍데기 오토바이 헬멧' 작품을 관람 하고 있다. 13회 광주비엔날레는 5월9일까지 광주비엔날레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국군병원, 광주극장 등에서 펼쳐진다.

코로나19 속 개막 13회 광주비엔날레…방역 강화

입장제한·마스크 착용·발열 확인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를 거듭했던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관람객 입장제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을 강화하고 3월 31일 막을 올렸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3회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사전예약제 운영 등의 방식으로 5월9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13회 광주비엔날레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기존 행사처럼 관람객이 자유스럽게 입장할 수 없다. 전시관 입장객은 300여명으로 제한되고 사전 예약 관람제도 도입됐다.

관람객은 발열 여부 확인과 출입기록부 작성 등을 거쳐 입장이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다. 전시관 내에서 음식물 섭취 등은 금지된다. 또 방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돼 전시기간 각 전시관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전시관 곳곳에서 방역을 전담하는 로봇도 도입돼 운영된다.

지난 행사는 전시기간 휴관이 없었지만 13회 행사는 매주 월요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휴관되며 개관 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춰졌다.

최윤희기자